



3면

문대통령 '한국판 뉴딜 2.0 선언'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1년 7월 15일 목요일 (음 6월 6일) 제2821호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지금 멈추지 않으면 막을 수 없다”

송하진 도지사, 코로나19 4차 대유행 방역 동참 호소

“도민 방역 참여만이 대유행 극복하는 힘”

정읍·남원서 변이바이러스 감염 발생

수도권 방문하고 돌아온 주민 매개로

익산 집단감염 발생에 심각한 우려 표명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위기를 맞아, 수도권인 사회적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고, 전북지역 일 평균 환자 수도 증가하는 가운데,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은 지금 멈추지 않으면 막을 수 없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방역 동참을 긴급 호소했다.

송하진 지사는 14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대 도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우리는 위기와 일상 회복의 갈림길에서 있어 지금 멈추지 않으면 최악의 상황이 닥칠 수도 있다”며 “도민의 방역 참여만이 대유행을 극복하는 힘인 만큼 다시 한번 긴장의 고삐를 당겨달라”고 당부했다.

송 지사는 “지난 7일부터 일주일째 전국 환자 수가 1천 명대를 돌파하고, 신규 확진자의 70% 이상은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우리 지역에서도 수도권 확산세와 맞물려 이미 위기 징후가 나타나면서 일 평균 환자 수가 7명으로 증가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특히, 변이바이러스의 빠른 침투로 정읍과 남원에서 변이바이러스 감염이 발생하고, 익산에서는 수도권을 방문하고 돌아온 주민을 매개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송 지사는 “지난 겨울 대유행 이후 합동체 안전장전 일상이 송두리째 흔

들릴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다”며 “경각심을 높고 방역을 소홀히 하는 순간 일상과 경제는 다시 한번 공포 얼어붙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송 지사는 “일상이 강력히 제한된 수도권을 피해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고, 여름휴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점도 우려된다”며 “수도권 등 다른 지역 방문을 멈춰주고, 수도권에서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일도 자제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4차 대유행 차단을 위해 총력을 쏟고, 예방접종에도 만전을 기해 집단면역 달성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송 지사는 “15일부터 전북도 14개 시·군 전체 거리두기는 강화된 1단계로 사적모임은 8인까지로 제한한다”며 “수도권의 거리두기 4단계 조치로 인한 풍선효과를 예방하려는 선제

적 조치로 어려운 결정에 동참한 시장, 군수님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1일 출범한 전북도 자치경찰위원회를 비롯한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철동 방역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끝으로 송하진 지사는 “자치경찰위원회 전북경찰청과 협조해 방역수칙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등 행정력을 총동원해 감염 취약시설을 점검하고 방역을 점검하겠다”며 “전북도는 고통을 분담하고 어려움을 견뎌주시는 도민 여러분을 위해 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그는 “멈춤의 시간에 충실할수록 일상 회복의 희망은 가까워질 것이다”며 “나와 내 가족, 전북도를 지킨다는 비상한 각오로 다시 한번 방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송하진 도지사는 14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지금 멈추지 않으면 막을 수 없다”며 대 도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효과를 고려해 현재 시행 중인 사적모임 제한 강화를 건의했고, 시·군이 이를 어렵게 수용해 이 같은 결정을 발표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도는 이후 수도권과 지역의 유행 상황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한 후 방역 수칙을 조정하기로 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날 대도민 방역 동참을 호소하면서 “지금 멈추지 않으면 최악의 상황이 닥칠 수 있으니 다시 한번 긴장의 고삐를 당겨주시길 당부 드린다”며 “지난 1년 반의 고통 감내가 허사가 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 4차 대유행 차단에 총력을 쏟을 것이니, 도민 여러분께서도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적극적으로 백신접종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도 자치경찰위 1호 지휘·명령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합동점검 강화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

유형시설 단속 적극 시행

지난 6월 공식 출범한 전북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합동점검을 제1호 지휘·명령으로 발령했다. (관련사진 2면)

“전북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최근 수도권 지역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의 가파른 증가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조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1호 명령을 발령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3일 개최된 제5차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신속하고 안전한 도내 자체 방역점검을 위해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유형시설 특별단속 관련 경찰청장 직접 지휘·명령 발령 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율리 전북경찰청장에게 “방역수칙 위반 단속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대해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고, 유형시설 특별단속을 적극 시행하는 한편, 현장 경찰관이 감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현장 경찰관 안전에도 유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1호 지휘·명령을 의결했다.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에 따라 앞으로 전북경찰청에서도 도와 시·군 방역당국과 협력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특별단속에 적극 협조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형규 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도민의 삶을 위협하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은 어느 한 기관의 업무가 아니며, 모든 국가행정과 지방행정이 한 뜻과 한 방향으로 대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율리, “이번 자치경찰위원회 지휘·명령에 따라, 방역당국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대책에 전북경찰청에서도 선제적·예방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도내 전체 사적모임 8인까지 제한

전북도, 25일까지 ‘강화된’ 거리두기 1단계 적용

수도권 4단계 시행 따른 풍선효과 고려해 결정

유행 상황 변화 지속 관찰 후 방역수칙 조정기로

전북도는 15일부터 도내 전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유지하며, 전주, 군산, 익산, 완주 혁신도시 지역에만 적용했던 ‘사적 모임 8인까지’ 제한을 전 시·군으로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지역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단계 조정을 추진하며, 수도권처럼 선제적인 단계 격상과 사적모임 제한 등 방역 강화 조치를 권고했다.

국내 발생 확진자는 지난 7일부터 전국 1천명 이상이 8일째 발생 중이고, 최근 1주간 일 평균 992명으로 전주 665명 대비 51.5% 증가했고 80% 이상이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도내 발생 확진자는 6월 일 평균 환자 4.6명, 일상에서 소규모 감염만 있어 안정적이었으나, 수도권 환자 급증에 따른 무증상 감염자와 N차 감염 등으로 7월 일 평균 7명으로 증가했다.

또한 외국인노동자 집단감염과 정읍과 남원에서 변이바이러스 검출 등 지역내 감염 확산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에 전북도는 도내 전체에 1단계를 적용하며 7월 15일부터 25일까지 도내 전지역에 사적모임을 8인까지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당초 개편안 1단계는 사적모임에 제한이 없으나 7월 15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는 7월 25일까지 사적모임을 8인까지 제한한 강화된 1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조치는 도내 14개 시·군별로 환자 발생상황이 다르지만, 전북도가 수도권 4단계 시행에 따른 풍선효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깝게’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해주세요

http://council.jinan.go.kr

군민의 뜻에 귀 기울이는 바른의회!

진안군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진안군의회
http://council.jinan.go.kr